

지역 소식통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접수

부안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2회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만건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추가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로 올해부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단가를 반영해 택배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1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함에 제출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난임 부부 치유로 건강회복과 출산을 제고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난임 자연치유 캠프는 난임부부가 자연 생활로 돌아가 건강회복을 통해 난임을 치유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진안에 위치한 온생명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풍욕, 냉온욕, 명상·요가, 난임치유식 만들기, 자연산마가, 식생활개선 등 자연생활체함을 통한 부부의 건강증진과 자연임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난임부부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로 신청방법은 7월 10일까지 신청서를 가지고 정읍시보건소 2층 건강재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현안 사업 협조 요청

심덕섭 군수, 전북지방환경청 방문... 군도 1호선 확장포장 사업 · 신활력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심덕섭 고창군수가 4일 지역 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했다.

이날 심 군수는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도 1호선 확장포장 사업,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등 고창의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심 군수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1호선 확장포장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군도 1호선은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하고 구시포해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을 잇는 10km에 달하는 해안 도로이다.



이 해안도로 인근에는 서해안 노을명소가 될 해상교량 노을대교의 건립이 확정됐으며 용평리조트 등 종합레저마파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명실상부 서해안권 해양 관광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일부 도로 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전북지방환경청에 군도 1호선 확장포장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심 군수는 고창의 신활력 산업단지 및 북부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등 단계적 계획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 청년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읍시 '청년취업 돕는다'

공무원 · 공기업NCS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정읍시가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 청년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읍시는 지역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 공기업NCS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지난 2월 6일에 개강해 공무원 직강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 NCS반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시민과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전형으로 정읍시 내 직업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 동영상반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사무실

(평생학습관 3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강의 중 공통 과목은 전문강사의 직강이 진행된다. 공무원반은 국어·영어·한국사, NCS반은 수리영역·문제해결·의사소통 등을 강의한다.

이외러 평생학습관에는 학습진도관리자가 상주해 수강생들의 입·퇴실 및 학습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무원 시험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만큼 지금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적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우수 김성근 팀장 · 우수 이승기 주무관 · 장려 임은지 주무관 등 표창장 수여

고창군이 2023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3명(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을 선발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에 선정된 상하수도사업소 김성근 팀장은 북부농공단지 전처리시설을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해 협잡물제거기, 슬러지처리 설비 등 중복시설 병합추진으로 9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 팀장은 북부농공단지 기존 입주업체와 전처리시설업체 사용협약 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 흥덕·부안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의 증설에 대한 마을주민의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지를 이동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높이 샀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이승기 주무관

(해리면)은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이나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지에 대해 회수 수로관으로 5개마을 8개소에 사업을 추진, 마을 주민민원을 다수 해결함으로써 군정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장려에 선정된 임은지 주무관(신활력경제정책관)은 선운산도립공원내 캐리더상점을 리모델링해 청년 생산제품 전문 유통·판매를 위한 거점공간인 '청년 1번가'를 개소하는데 앞장섰다.

또 '청년 매거진'의 온·오프라인 발행을 통해 청년 성공모델 제시 및 생산품 홍보를 위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청년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규제혁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민원·갈등 해결 등 군민의 편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군민과 부서를 대상으로 추천받아 실무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국내·외 교육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S)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실천 역량강화 전직원 교육

부안군은 지난 3일 7월 열린공공의 날을 맞아 사례중심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직원 적극행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임대진(광주광역시청 감사(팀장))강사는 부안군 직원들을 위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 △소극행정의 폐해 △사전컨설팅 제도의 이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행정의 복잡성과 모호성 속에

서 공극적인 공약까지 증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마인드를 근간으로 하여, 부서간 업무협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현안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문제 해결에 감사의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진행한 임대진 강사는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의 달인(적극행정 분야)으로 선정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대상' 수상

전북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정읍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

전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증감율, 과태료 징수율 등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8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했다.

시는 세외수입 432억원을 징수해 88.7%의 징수율을 달성,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

이 전년 대비 3.8% 상승해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변호관영치, 권의 거주자 징수 독려 출장 등을 추진했다.

순문국 세정과장은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